

젊은이 페이지 (대학부)

낙도 사역을 다녔는지

‘가지고 온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알려요!!

정 성 민 (5학년)

5 일간의 낙도 사역 기간은 나에게 있어서 짧게는 98년 한 해에, 길게는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의미를 주는 시간들이었다. 너무나도 길었고 동시에 너무나도 짧았던 시간 2주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흐릿하지는 기억을 붙잡고 싶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정리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펜을 들었다.

왜 내리기가 하는가? 낙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내내 들었던 의문이었다. 사실 일주일 전부터 낙도 사역을 준비한답시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생각해 보고, 필요한 준비물도 장보러 다니고, 섬벌도입을 매일 가지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낙도로 가는가 하는 것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교회 비스에 몸을 맡기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침사리 잠이 오지 않았다. 마치 와이셔츠 입은 복음의 칼라들이 엄격 공장에 들어가는 회색을 즐긴다고 콘소리치는 모습 같아서 참 부끄러웠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리놓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어느 것 하나 내 생각, 내 준비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낙도에 있는 귀한 영혼을 바라보다가 내게 더 혼란되어지고, 더 많은 경험들을 쌓아 가는 생각만 앞세웠던 모습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8시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독도에 도착했다. 득달하고 화도 땀을 먼저 보내고 각 섬벌로 짐을 정리하고 출발하려는 데 생각지도 못한 경찰의 방해가 있었다. 하지만 무사히 수협선을 타고 출발하게 되었다. 안도의 한숨을 다 뱉기도 전에 첫번째 섬인 연호도에 도착했고, 신창에서 서로 손을 흔들면서 아쉬운 밤, 기대 반으로 팀원들을 떠나보내며 기도해 주었다. 다음으로 비전도 해 하우도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육지에서 출발한 지 1시간 반이 지나 다랑드라는 섬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빈 교회를 청소하고, 가지고 온 짐을 풀고 정리했다. 그 후 집마다 다니면서 섬 주민들에게 인사를 들었다. 이곳 저곳을 다니는데 돌기둥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띄었다. “간접잡은 아바되!” 신교하는 얼마짜고! 낯설은 아바되, 과연 이 땅이 소위라고 있어버린 땅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첫째날 도착 후에는 제대로 개회해 배를 드리지 못했다. 섬 주민들을 만나

느라 시간을 보낸 탓도 있었지만 사탄의 방해가 느껴졌다. 우리가 모여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낙도라는 땅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선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가지고 온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말씀을 통해 ‘넌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 오셨다. ‘과연 난 낙도에 무리심을 받았는지?’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뻐하는 마음이 드는가?’ ‘내 마음에 영혼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가?’ 이러한 끊임없는 질문들 앞에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만 하루하루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낙도에 적응을 하고, 이 땅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답답함을 하나하나 풀어 주셨다.

사역기간동안 집집마다 다니면서 출초전도도 하고, 힘들게 버릴 하시는 할아버지도 도와드리고, 바리새 학교 청소도 하고, 그물 정리하시는 것을 도와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낙도 사역은 ‘삶 그 자체’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마음 이장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놀라운 학생들이 아니란 것을 아시고는 “울은 일 하는 거여.”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라 착하구먼!” 하시며 마음을 조금씩 여셨다. 두 분의 할아버님도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된 주민들도 생겼다.

셋째날 저녁, 집집마다 방문하며 주민들 앞에서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복음서가 <너는 바닷가(가)에 섬 나무라>를 불렀다. 우리의 감정이나 위안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그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왔으면 하는 마음이었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날 허공에 울려 퍼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님을 믿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민들의 점점 달라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산 위에서 섬 전체를 바라보며 새벽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쌓여진 결산사자들이

오는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교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알아 가는 것이고, 빈 교회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되는 모습만 보여줘도 그 복음의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교회의 인식이 더 좋아짐으로 다음 사역자들이 더 편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될 수 없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이 일을 위한 사역자가 없다는 것이었다. 교회만 있으면 가고 싶다는 어느 아주머니의 말씀처럼, 정말 그 황폐한 땅에도 사역자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릴 비누선물을 이장님댁에 맡기고, 다섯째 날을 마무리하며 서울로 향했다.

배 타고 섬을 나오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자꾸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독도에서 전체 낙도까지 모여서 사역교대회를 가졌다. 낙도에서 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다른 섬의 사역들이 더 귀하고 크게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갔던 다랑드라는 다른 섬에 비하면 실패한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실패한 것까지도 사용하셨고 내가 한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만이 하셨다.

낙도 사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후속 사역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간절한 기도를 부딪드린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다녀오니

주제로 뜻을 정하고나니

황 성 연 (1학년)

처음에 난 학교에서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고민했다. 왜냐하면 ‘대학의 신입생 환영회’는 술 마시고 자는 혼들어서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연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괜히 친구 사귀려고 갔다가 오히려 친구 하나도 제대로 못 사귀을까 걱정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을 본 적이 있다.

‘만약 이생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불행하다’고... 처음엔 아무 생각없이 지나쳤는데 이것이 지금 내 상황 같았다. 나는 술이나 담배가 믿음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두잔 정도만 마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한다면 주님의 삶을 따라야 한다. 하고 싶은 걸 하고, 희생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는 불행해 보일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이란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과정을 기도하고 감사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술을 마시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중요한 선배도 없었고, 동기들도 크리스찬임을 인정해 줘서 정말 즐겁게 지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

▶ 나는 수련회를 준비하며 은혜를 확인해요!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수련회를 기도와 헌신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수준모”-“수기준사모”-“수기사” 가정

• 이번 여름 수련회는 더 많은 대학부 지체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주재, 기획, 프로그램, 진행에 이르는 전반에 걸쳐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신 건전한 대학부 회원들을 찾습니다.

• 3월 15일부터 수련회가 끝나는 7월 26일까지 매주 저녁 기도회와 여러 준비모임을 가질 것입니다.

• 기획, 홍보, 노동, 워크북, 등 각종 섬김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첫모임은 오늘(3월 15일) 저녁 예배 후 매주라기을 위해 있습니다.

• “군인대나 유학을 앞둔 유학하고 전폭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모임”

▶ 3/1 ~ 3/14 대학부 동침

1. 3월 첫주에는 각 대학 지부별 개강에 배가 있었다. 2월(월)에는 중동·북부지구 의무스가 한양대에서, 5월(목)에는 서부지구 의무스가 추계대대에서, 6월(금)에는 남부지구 의무스가 중앙대에서, 그리고 7월(토)에는 경인지구 의무스가 선교관 매주 라기움에서 각각 개강예배를 드렸다.

2. 지난주 9월(월)에는 대학부 지체들 가운데 미술을 전공하거나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New Creator에서 ‘꿈꾸미엔젤라’ 비디오를 상영,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3. 13일(월)에는 북부지구 의무스 기도 및 MT가, 대학부 새가족목 MT가, 그리고 한양대 의무스 MT가 있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신앙상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신 믿음의 가족들이 계셨기에

정 옥 린(전사, 9교구)

오늘도 저의 삶을 이끄시며 때마다 일마다 평강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 위에 지금의 제가 믿음의 길을 가기까지 많은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의 수고와 함께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동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내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충현교회에 다니시던 친정어머니께서 함께 충현교회에 다니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에는 아이들도 어렸고, 거리가 너무 멀고 또한 차도 없어서 망설이며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92년 새해 구역예배를 이웃 전사님 덕에서 드린다고 구역 전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교회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 구역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도 괜히 어색한 것 같아 거절했지만 전사님의 끈질긴 권유로 마침내 참석했습니다. 갔더니 목사님, 전도사님도 오셨고 구역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다가 왔습니다.

그 주일 아침에 교구장 장로님의 부인되신 전사님께서 우리 가족을 태우고 교회로 가겠노라는 연락이 와서 조금 당황했지만 고맙기도 해서 못간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교회에 갔는데 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로, 둘째는 초등학교, 셋째는 유치부, 막내는 영아부로 전사님께서 뛰어들어시며 아이들을 교회학교에 등록시키고 남편과 저는 2부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모든 순서후에는 또 모아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시기를 한 달, 마치 오래 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편안하셔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먼거리라 느끼지 않도록 차로 태워다 주신 전사님과 초등학교 4부 교사로 봉사하시던 구역 전사님께서 큰아이를 담당하시며 세심한 배려로 돌봐주시고 또 구역식구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교회 다닐 때는 11시 예배 드리기 5분 전에도 일어나지 않던 남편이 아침 7시반 일어나 먼저 준비하고, 일어나서 툰다다는 불행 한마디 없이 잘 수 있었던 것도 구역 여러분들의 기도와 봉사 때문이라 믿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모두 교회학교 찬양대로 봉사하고, 특히 막내가 영아부 찬양대에서 찬양을 잘해 현금송이나 행사때 특송을 부르거나 남편은 당당히 또 열심히 교회에 갔고, 순종한 교회 가기 위해 차를 사며 기쁜 마음으로 온 가족이 주일을 기다리는 충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친정어머니께서 새벽기도 하러 가시다 교통사고를 당해서서 소천하셨을 때, 저희 집에서 구역예배를 드린 중 연락을 받고 났을 일고 있었는데 구역 전사님께서 목사님께 연락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오빠로 인하여 저를 돌보아주시던 어머니의 소원이 충현동산에 가시는 거였는데 그 모든 절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어머니 하늘나라 가시는 길을 찬송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교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너무 큰 위로와 사랑을 주심에 그 감사한 마

음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어머님께서 담남양으로 수을을 받으시고 투병생활을 하시다 소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골 할머니가 서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 구역식구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보시면서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이렇게 찾아와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고마워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말씀하시며 가르치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시며 병상세례 받으셔서 믿지 않는 시댁에 예수님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당하여 남편과 제가 절하는 문제로 집안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중 전두부 천리길을 떠나 않고 구역식구들과 교구의 목사님, 전도사님, 전사님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오셔서 예배대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 주신 것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련으로 흔들릴 때마다 견고하게 잡아 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시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고저고 남편이 이곳에서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하던 감사할 뿐입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하심과 그 주님을 믿으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구역식구들과 믿음의 형제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저도 그분들이 본을 보인 그 모습대로 사랑의 수고와 봉사를 하는 것이라 여기며 주님 앞에, 믿음의 형제들 앞에 사랑의 빛이 차 되어있고 그 사랑의 빛을 값으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신앙상담

여호와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

정 현 민 (목사, 16교구 · 강년3부 · 범조전전도회 · 도사장학회 지도)

질문 / 여호와와의 증인이 이단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래전부터 들어와서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여호와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가?'하고 물으면 체계적으로 해줄 말이 별로 없어서 당황스러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호와와의 증인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하여 꼭 알고 싶어서 하는 것들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 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운동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을 했던 새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명칭은 이사가 43장 10절과 44장 38절에 있는 '나혜는 나의 증인'이란 말을 인용하여 '여호와와의 증인'이라고 명명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와의 증인'의 이단 사상을 한국에 처음으로 전래한 사람은 1912년에 후리스터와 1915년에 내한한 맥켄지였습니다.

이들은 주로 문서를 통한 선교 활동을 했으며, 특히 기독교인의 집을 호가 방문함으로써 세로 조직적인 포교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1912년에 한국에 들어온 이후 여호와의 증인은 수많은 가정을 파고들었으며, 병역기회, 집총거부, 수혈거부 등으로 수많은 병역사범의 전과처분을 대량 양산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단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을 먼저 살펴본 후 성경적으로 조명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성경관 :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경을 외형적으로는 유일한 권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성경을 단순한 그들의 교리서들의 보조자료 정도로 취급함으로써 성경관에 있어서 기독교의 정통신앙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 집단만이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하고 사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자기들만이 성경의 진리를 독점한 것처럼 인식하는 이단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관 :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여기고 때로는 천사장 미가엘과 동일시 하였습니다. 이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는 이유로서는 이 교리를 바벨론의 고대 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며, 인도나 애굽의 삼신론의 영향을 받아 조교교리가 만들어진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관 : 여호와와의 증인의 구원의 특징은 행위구원의 강조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속원리를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배상적 속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인류의 속죄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피흘린 속죄의 대가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넘치는 사랑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상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의 만족설을 부인하는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종말관 : 이들의 종말관은 지옥을 부인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옥을 부인하는 이유로서는 지옥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반하여 모순되며, 비성경적이며, 비이성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4,000명이며, 이들 외에 호별 방문하는 신자들을 다른 양들이라 부르며 이들은 144,000명과는 달리 구원 얻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주장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와의 증인들의 주장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는 그들의 오류를 비판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해석의 오류입니다.

여호와와의 증인들이 근본적으로 병하고 있는 오류는 그들의 성경 권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권위를 주장하지만 그들의 신조를 확증하기 위한 참조문헌 정도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삼위일체 교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초대 교인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아니했다고 하며, 삼위일체 교리는 사단의 계책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됩니다. 성부나 성자는 다른 존재나 다른 하나님이나 분리된 존재와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라고 가르치며 아들과 아버지는 일체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며, 권능과 인격과 본질은 하나이신 영적 존재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 3:13-17).

셋째로, 그리스도의 피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만 이것은 성경의 주장에 어긋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하나이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요 1:1; 요일 5:7-8).

넷째로, 행위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호와와의 증인들은 행위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스스로 아무런 의로워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롬 3:23)고 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방해를 받았으니"(엡 1:7)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으며 하나님도 없다고 신봉하므로 성경은 분명히 흠없는 존재가 없음을 밝히고 인간의 허물된 죄악은 원조조로 타인에 의해 갚기위해 수백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 해석에 있어서나 삼위일체 문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문제나 구원의 문제를 살펴볼 때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분명한 이단이라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상담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지면을 통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나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판국으로 질문해 주시면, 여러 교역자님들의 자문을 구하여 지면을 통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체를 소식 / 할 말

지체들 소식

▶ 열아부 / 열아부는 3월을 대성만 하는 달로 정하고, 주일마다 만나는 친구들은 물론이고 개인 사정으로 교회를 찾지 못하는 아가들을 심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들은 바쁜 중에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회회에 장기 결석하는 아가들을 먼저 찾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열아부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매주 새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송해정 통신원)

▶ 유지부 / 3월 29일 집회 시간에 교육관 205호에서 사도신경과 십계명 위유기 대회를 가졌다.

▶ 총동2부 / "너희들, 꿈 잊었지? 그 꿈을 통해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드리겠습니까 라고 보고드리자" "음, 그럼, 다음 주에 또 그 하나님께 드릴 보고서를 써 오기야" 반 아이들과 이렇게 약속하셨다며 신이 나서서 말씀하시는 선생님

"집사님, 우리 애가 가슴 사진을 찍었는데 잘 찍혀서 걸렸다가 나온 흔적이 뚜렷이 있더라고요."

어제구! 어제구!
지난 번 수련회 때에도 우리는 애들처럼 아이기꼴을 피우느라고 이를 밟도 두가 두가 넘어서야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확실히 찬 모습은 오늘도 여전하다. 그 아름다운 교제의 배후에는 우리 주님의 숨은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순종

하는 교사들로 세워 주세요. (나성애 통신원)

▶ 칠년2부 / 오늘(3월 15일) 오후 12시 30분 교육관 314호에서 전도 특강을 실시한다. 그날은 97년도 전도대상을 수상한 장년2부 교사인 이진규 집사이며 특강은 간증식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란다.

▶ 12교구 / 에스더전도와 12지회 회원들은 지난 3월 10일 10시에 성전 뜰에서 출발하는 충원기도원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말씀, 찬양,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회에 은혜받기를 사모하면서 참여하기 위해서였다. 기도원 사역을 담당하고 개신 전령목 목사님은 "두 마음을 품지 말며 목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증거하셨다. 잠조차 무성하고 가사와 영령귀가 우겨져서 파종할 수 없는 땅을 일구어 기를진 옥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가었다. 마침내 여호와께사의를 비치려던 회교에 내리시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막다른 봄을 맞는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도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를 앞둔 우리들에게 목은 땅을 기경함과 같이 땅을 맞춰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발을 일구자는 것이다. 일구어 낸 그 흙에 기도의 씨앗을 심

으러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행렬이 줄이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12교구는 97년도 교구영성훈련이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 2번씩이나 연기되면서 결국은 교구영성훈련의 기회를 금년 3월 19일(목)에 갖게 되었다. 이번 아야말로 오랜 준비 끝에 있을 영성훈련이기에 더욱 풍성한 은혜 주실 줄을 믿는다. (이혜자 통신원)

▶ 15교구 / 관악산, 국립묘지에 이어 15교구의 또 하나의 명소 보라매공원, 보라매관 그 해에 태어난 새끼를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를 말한다. 또한 창공을 나는 공군의 상징이기에 그 이름에는 꿈과 기상과 기백이 있고 어휘 그대로 보라매 꿈이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그 이름의 공원이 붙은 이곳에서 지금 할 일이 없었던 노인들과 IMF로 인한 실직자들이 시간을 보내고, 행려병

자와 부랑인들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안타까운 곳으로 변해가고 있다. 자연히 이곳은 15교구의 각 낙년전도회의 중요 전도 전략의 하나가 되고 있다. 곳곳에서 추수할 일꾼을 부르고 있는 이때에 맞추어 3월에 남성도 구역 예배가 힘찬 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인의 확정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인데 모일 수는 각 구역별로 달라도 남성도 구역예배는 그렇게 전도를 위한 '보라매'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한승정 통신원)

▶ 출현복지관 / 조기교실 아동을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0-13세 장애 아동(정신지체, 자폐 등)을 대상으로 그림지도, 개별지도, 특수 체육 및 미술 지도를 하게 된다. (문의: 562-0548, 565-7564)

통사울노회 제53회 정기노회에 각종 고시신청서들 제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① 목사고시청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② 강도사 이하 고시 청원 ③ 전도사 고시 청원 ④ 목사 후보생 및 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⑤ 신학 계속 추진 청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1998년 3월 24일(화)까지
- 접수 및 문의: 교회 사무국 총무과(☎ 563-2339)

합동신교부

가정 바로 세우기는 '신혼부터' 해야죠

결혼 앞둔 남녀, 각 결혼한 신혼부부 대상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201, 202호

제2의 새로운 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을 바로 앞두고나 신혼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모이는 모임이다. 가정은 본디 세우기를 의지하는 신혼가정부부(부랑 이병욱 장로, 지도 조철수 목사)는 예전의 예신부와 새가정부가 합쳐져 작년 연말에 탄생한 부서이다.

먼저 신혼가정부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는 결혼이 정해진 남녀, 그리고 막 결혼을 한 1, 2개월 정도의 신혼부부이다. 이들은 1년간 함께 지내며 '성경적인 가정 세움'을 배우고 실천한다. 대개는 결혼 날짜가 정해진 다음에 이곳에 들어와 교육을 받고 결혼 2개월간 정도 등반이다. 이곳과 결혼한 지 10개월 정도 되면 이렇듯의 모든 교육이 마쳐진다. 올해는 모든 것들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연말에 수료가 되었던 중간에 들어온 회원들을 위해 다음 해부터는 1년에 2회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매 주일 10시 30분부터 신혼가정부실(교육관 201, 202호)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들과 이야기로 가득하다. 관련 글이나 만화까지 모여 그룹성경공부를 한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어디서 나누지 못했던 내용들까지도 가정과 관

련된 이야기면 모두 내어 놓고 이야기하고 그에 맞는 생활의 지혜도 얻는다. 그래서 모두들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매일 가정예배 드리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신혼가정부는 결혼을 전후한 시기별로 나누어 사랑, 믿음, 소망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구성되어 있다. 모든 과가 같은 교제로 공부하고 있지만 결혼을 앞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있는 사랑과 결혼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더 공부한다. 성경적 결혼, 배우자의 가족들과의 바른 관계, 서로의 성격이나 심리 그리고 경제 생활과 가정 문제, 의학이나 혼수 문제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것이 대부분이다.

부부가 한 안에서 자신들의 가정을 놓고 교육을 받는 곳이기때 부부가 한만의 교사를 맡아 자신들의 상황들을 나누며 그룹성경공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호 이해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가정의 신앙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가정 신앙 생활 훈련이나 야의 신앙 훈련, 기의 행복한 가정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특강들도 준비하고 있다. 오늘도 '부부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김병대 목사가님 오전 10시 50분부터 특강

을 한다. 그밖에 사무국에 접수된 결혼 신청서를 토대로 한 회원 배가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봄맞이 사진 콘테스트도 가질 예정이다.

신혼가정부에선 지금 결혼을 앞둔 성도들이 이곳에서 꼭 교육받기를 당부하고 있다. 예신부와 새가정부가 합쳐졌지만 기존의 새가정부 회원들은 거의 청년2부로 가게 됐고, 회원들이 머무는 기간도 짧아서 회원수가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다른 교육부서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그곳에서의 봉사를 잠시 중단하고 이 시기에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들을 받은 후에 봉사를 해주었으면 하고 당부한다.

종교회의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바로 세길 원하고 신혼가정부 회원들의 신앙이 돈독해지며 생활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기도하는 신혼가정부가 신혼가정부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해 줄 수 있길 바란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된다"(시 127:1).

(글/ 박주영 기자, 사진/ 이윤구 기자)

3월 22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비리온 서준성
(오르간 / 백금속)
가브리엘찬양대 솔로
이스트
(찬양곡목)
• 감람나무 사나운(찬 461장)
• 내 영혼이 은총 일어(찬 495장)
• 내 신한 목사
• 주기도



◆ 3부예배
소프라노 최성숙
(오르간 / 조희영)
할렐루야찬양대 솔로
이스트
(찬양곡목)
• 내 근심 걱정 말라(찬 432장)
• 주 예수마로 더 귀한 것은 없네(찬 102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찬 40장)



◆ 4부예배
비리온 김유정
(오르간 / 조희영)
할렐루야오케스트라 악장
(찬양곡목)
• 내 마음을 위하여
• 눈물들이 하늘 보라
• 고독의 땅에 벗어리고
• 내 마음이 낙심 되며
• 아 하나님의 은혜로



◆ 5부예배
헬로 김희현
(피아노 / 김경아)
할렐루야오케스트라
단원
(찬양곡목)
• 주님 사랑해요
• 오 신실하신 주(찬 447장)
• 홀으신 하나님(메들리)
• 동방



교 회 소 식

●알 림

1. 신혼가정부 특강 / 오후 10:50, 교육관 201호
- 주제: 부부 갈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강사: 김병태 목사
2. 크로아티아 - 만돌린 신인 대회모집 / 3월 29일
까지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문의: 김순수 집사(크로아티아 548-6916),
이연순 집사(만돌린 3463-0434)

●모 임

1. 정로회새벽기도회 / 17일(월) 새벽7:30, 교육관 109호
2. 교육위원회 월례회 / 13일(금) 18:00, 교육관
3.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후 15:30, 사무국
4. 설립인민지도회 주일기도회 / 4월 15일, 설립인민지도회
5. 설립인민지도회 목요기도회 / 19일(목) 새벽기도회 후, 설립인민지도회
6. 안수집사회 오교우회 성경공부 / 16일(월)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7. 권사회 제3회 월례회 / 18일(수) 1부예배 후, 사무국

●남녀친도회

1. 바. 물 1 / 21일(토) 18:30, 다목적강당(3453-9711)
2. 바. 물 2 / 오후 15:00, 유아부실
3. 바. 물 5 / 19일(목) 19:00, 노아식당(556-8459)
4. 바. 물 11 / 오후 14:30, 영아부실
5. 바. 물 13 / 오후 14:30, 유아부실
6. 바. 물 16 / 오후 15:00, 유아부실
7. 바. 물 17 / 오후 15:00, 교육관 317호
8. 바. 물 2 / 21일(토) 17:00 - 교회 동문(형소),
19:00 - 이영애 집사(549-7201)
9. 베드로 4 / 21일(토) 18:30, 권병욱 집사택
10. 베드로 6 / 21일(토) 19:30, 권병욱 집사택
11. 베드로 10 / 오후 19:00, 김경환 집사(3491-3839)
12. 베드로 12 / 21일(토) 19:00, 박종학 집사(325-6791)

13. 베드로 14 / 21일(토) 19:00, 이상남 집사(685-9100)
14. 베드로 16 / 오후 19:00, 고동부 찬양연습실
15. 요 한 3 / 21일(토) 19:00, 최정민 집사택
16. 요 한 5 / 17일(토) 19:00, 탁아부
17. 요 한 7 / 17일(토) 21:00, 충현기도원
(2000 해태백화점 후문앞 집합 출발)
18. 요 한 14 / 오후 19:00, 차정진 집사(0343-24599)
19. 요 한 16 / 21일(토) 19:30, 김진종 집사(0343-21808)
20. 한 나13 / 오후 19:00, 유아부실
21. 한 나16 / 오후 19:00, 유아부실
22. 예스다 1 / 오후 19:00, 유아부실
23. 예스다 2 / 오후 19:00, 유아부실
24. 예스다 3 / 오후 19:00, 유아부실
25. 예스다 5 / 오후 19:00, 유아부실
26. 예스다 6 / 오후 19:00, 유아부실
27. 예스다 7 / 오후 19:00, 유아부실
28. 예스다 9 / 오후 19:00, 유아부실
29. 예스다10 / 오후 19:00, 유아부실
30. 예스다11 / 오후 19:00, 유아부실
31. 예스다12 / 오후 19:00, 유아부실
32. 예스다13 / 오후 19:00, 유아부실
33. 예스다14 / 오후 19:00, 유아부실
34. 예스다15 / 오후 19:00, 유아부실
35. 예스다16 / 오후 19:00, 유아부실
36. 예스다17 / 오후 19:00, 유아부실
37. 루디아 2 / 16일(월) 11:00, 캄빈홀
38. 루디아 4 / 19일(목) 19:00, 캄빈홀
39. 루디아 6 / 17일(토) 11:00, 캄빈홀
40. 루디아 8 / 오후 19:00, 유아부실
41. 루디아10 / 17일(토) 11:00, 김희진 집사(941-4279)
42. 루디아12 / 오후 19:00, 유아부실
43. 루디아14 / 17일(토) 11:00, 이영숙 집사(782-2537)

44. 루디아16 / 오후 19:00, 유아부실
45. 루디아17 / 17일(토) 11:00, 장희숙 집사(0343-705-3777)
46. 미리아 2 / 17일(토) 10:30, 손은순 성도(545-9037)
47. 미리아 5 / 17일(토) 10:30, 캄빈홀
48. 미리아 6 / 17일(토) 11:00, 영아부실
49. 미리아 8 / 17일(토) 11:00, 남극구 집사(281-6288)
50. 미리아 9 / 17일(토) 11:00, 장정숙 집사(934-9466)
51. 미리아10 / 17일(토) 10:30, 장복제 집사(097-7577)
52. 미리아11 / 오후 19:00, 유아부실
53. 미리아13 / 오후 19:00, 유아부실

●결 혼

1. 김성우(김상복, 박, 김형영 씨의 딸, 제11교구)
과 권수현(김노강 씨, 박현숙 씨의 딸) /
20일(금) 14:00 복자관
2. 민승기(민병환 집사, 손재진 권사의 아들)과
하현주(하재명 집사, 문경희 권사의 딸,
제10교구) / 21일(토) 13:00 감리교회
3. 문정모(문계국 장로, 황순덕 권사의 아들)과
김민영(김은원 장로, 최정자 권사의 딸,
제9교구) / 21일(토) 14:50 어린이회관 문화복원홀
4. 김준범(김장제 성도, 민병석 성도의 아들)과
허슬비(허종복 집사, 이영애 집사의 딸,
제3교구) / 21일(토) 15:00 복자관

●별 세

1. 김계금 집사(장복을 집사 모친, 신귀식 성도 장모,
제17교구 무지개교구) / 8일 월세, 10일 장례
2. 김순진 권사(장복을 집사 모친, 신희순 집사 시모,
제17교구 수지1구) / 8일 월세, 10일 장례

금주의기도제목

1. 김장인 원로목사와 김성관 원로목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동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에게 달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시며, 장학생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인 일꾼이 되게 하소서.
3. 남성도 구역모임 말씀과 기도회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며, 구역장 훈련을 통해 구역교과 교육, 교회 전체를 건전한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세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4. 다음 주일예배 전 찬양을 담당하는 바리새 사울(가브리엘)과 솔로이스트, 2부, 소프라노 최성숙(할렐루야찬양대 솔로이스트, 3부), 마이클린 김유정(할렐루야오케스트라 악장, 4부), 첼로 김희진(대학부 오케스트라 단원, 5부)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5. 모든 성도들과 기원과 교회에 선교의 열거가 활활 타오르게 하시며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대전에 힘써 참여하게 하소서.
6.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될 수 있게 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소서.
7. 민족과 나라와 교회를 위한 회개와 기도의 운동이 불붙게 하소서.

■원로목사

김장인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원로목사

김성관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538	이은혜	14	중등부		551	김성숙	6	청년2부		564	김미정	19	대학부	
539	장은혜	4	청년2부		552	권성희	6	청년2부		565	이진	19	대학부	
540	박규진	4	요한	최자영(4)	553	백오현	1	바울		566	김정현	19	청년2부	김수진(7)
541	김정희	4	마리아	최자영(4)	554	이명철	19	대학부		567	이운종	19	청년2부	
542	장분순	2	마리아		555	김태현	19	대학부	김길남(11)	568	이철우	19	청년2부	김한원(13)
543	이영혜	2	마리아		556	최현애	19	대학부		569	이영아	19	대학부	강은영(8)
544	김수환	2	요한	장정희(2)	557	김소영	19	대학부		570	곽은정	19	청년1부	
545	한옥남	4	루디아	홍정진(1)	558	양지영	19	대학부		571	장정영	19	청년2부	조용희(192)
546	박정은	4	대학부		559	고현선	17	마리아		572	오정훈	1	고등부	
547	한영애	5	루디아	박영희(5)	560	정재홍	19	청년2부	조용희(12)	573	오정민	1	고등부	
548	박준수	5	베드로	김창진(3)	561	임지윤	19	대학부		574	이인선	14	대학부	
549	편우순	5	루디아	김창진(3)	562	신상민	1	청년2부						
550	박상훈	5	대학부	김창진(3)	563	김진희	1	청년2부						

※종교개혁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 성경통신 강좌

1998. 3. 15. 제98 - 11호
사사기 7장 ~ 사무엘상 3장

(제) 교구 지역 구역 () 이름

1. 다음 구절은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사사기 7 ~ 13절)

1)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 중에 돌아와서 ()

2) 미디안인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

3) 한 여인이 맥을 싹틔우며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지 그 두골을 깨뜨리니 ()

4) 그 때에 알론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

5)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뭇잎 애국하다 ()

6) 스불론 사람 알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십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었다 ()

7)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삼손이라 하리다 ()

2. () 안에 밑줄을 긋고 (사사기 14 ~ 21절)

1)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시니 삼손이 () 에 내려가서 노략하여

2) 말을 마치고 티끌을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릇을 () 라 이름하였더라

3)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 인이 되었음이니

4) 레위인이 내 () 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5) 하나님의 집이 () 에 있을 동안 미가의 처녀와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6)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랴니 () 중 한 곳에 나아가 거기서 유숙하라 하고

7) 베냐민 유백영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낙담을 지냈었더라

8)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 에 올음대로 행하였더라

3. 다음 성경을 완성하시오. (룻기 1 ~ 4장)

1) 나오미가 모든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2) 무엇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3)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위치

4)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세

4. () 안에 맞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시오. (사무엘상 1 ~ 3장)

1)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

2) 나를 존중하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 여기를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불쌍하 여가리라 ()

3)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그 말로 하나님 땅에 열리지 않게 하시니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
(골로새서 3:12)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 중원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주간성경공부

시대를 말씀으로 이겨내는 성도들

수강생 총 469명, 당분간 신청자 계속 모집

지난 3월 7일 개강예배를 통해 시작된 주간성경연구반 주간성경공부가 현재 총 469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지난 해 신청자 545명에 비해 76명이나 줄어든 숫자이다.

성경공부 신청자의 감소마저도 경제 한파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려운 시절일수록 말씀으로 시대를 이겨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바른 극복이 실천된다는 교회 역사의 가르침에 비추어볼 때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다. 그러나 성경연구원에서는 신청자의 감소가 홍보의 부족 때문일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신청자들을 계속 받을 계획이다.

말씀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충현의 모든 가정과 구역과 교회학교 부설과 찬양대들, 그리고 교회 전체가 이 시대를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한편, 주간성경공부 신청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화요일 - 크로스웨이1(10:00) 34명, 크로스웨이2(19:00) 19명, 교사양성부(15:00) 15명, 출애굽기(10:00) 35명, 마태복음(11:00) 37명

수요일 - 크로스웨이1(14:00) 22명, 크로스웨이2(14:00) 13명, 크로스웨이3(14:00) 17명, 크로스웨이4(14:00) 9명,

요한복음(14:00) 63명

목요일 - 요나 미가(10:00) 33명, 로마서(11:00) 37명

주말반 - 찬양대원양성부(15:00) 43명, 교사양성부(15:00) 92명

98 전반기 교구별 영성훈련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새 힘 얻는 영혼들

98년도 전반기 교구별 영성훈련이 시작되어 지난 17일에는 16교구 204명이 영성훈련에 참가한 가운데 은혜의 시간을 나누었다.

16교구(교구장 김영길 장로, 지도 정현민 목사, 김정자 전도사) 식구들은 예배를 통하여 창세기 11장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맡기는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이후에는 기도원 봉당과 개인 기도실 청소를 온 식구들이 동원되어 봉사하는 기쁨을 나누었다. 그리고 봉사 후에는 2시간에 걸쳐 개인 및 지역별, 전체 기도 모임을 가지고 돌아왔다.

한편 19일에는 12교구가 영성훈련을 가졌다.



다음 주 1교구부터 진행될 교구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날 짜	교 구
3월 24일	1교구
3월 26일	2교구
3월 31일	3교구
4월 2일	4교구
4월 7일	6교구
4월 9일	5교구
4월 14일	7교구
4월 16일	8교구
4월 21일	9교구
4월 23일	10교구
4월 28일	11교구
4월 30일	13교구
5월 7일	14교구
5월 12일	15교구
5월 14일	17교구
6월 6일	19교구

석한 모든 남성도 구역장들은 시종 지한 가운데 교회로 강의를 청청하였다. 이번 훈련을 통하여 남성도 구역장들이 교회론을 비롯하여 구역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교육을 받아 남성도 구역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하겠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힘을 내어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남성도 구역장들이 말씀에 더욱 능한 자들로 세워지고 구역 운영에 관한 깊은 이해를 습득하여 교회의 일치와 진정한 성숙을 이루는 일에 기동처럼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도와야 하겠다.

알림

차량관리부

교회내 차량 질서 유지를 위해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들의 은혜로운 예배를 돕고, 안전과 질서 유지 및 교통 정리의 주와 안내를 위해 뜻이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차량관리부실
(봉당 지하 1층, 구내전화 284)

현금위원 교육

예배 각 부의 현금위원으로 섬기는 일꾼들이 영적인 준비와 실제적인 이해 가운데 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이 아래와 같이 실시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1998. 3. 27(금) 오후 5:30

장소: 봉당

대상: 예배위원회 산하 각 부

현금위원 전원

강사: 박경환 목사, 정영자 전도사

* 교육 후 식사 제공합니다.

남성도 구역장 훈련

3월 18일부터 시작하여 총 18주 동안 진행

매주 수요일 1부예배 후 가지는 부지역장·구역장 훈련에 이어 지난 18일 수요일 2부예배 후부터는 남성도 구역장 훈련이 시작되었다.

총 18주에 걸쳐 진행될 이번 훈련은 교회론을 시작으로 하여 총 12과목 18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리고 각 주제별로 실시될 이번 강의는 강의안을 집필한 집필자들이 직접 강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8일 시작 모임에 참석한 남성도 구역장들은 총 102명이었고, 참



아시나요? 어린이 수요일예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이렇게 모두 동거종교 모여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에 교육관 109호에서 어린이 수요일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오래된 모임입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어린이들이 생활이 너무 바빠져서(학원가고 과외반느라) 수요일예배에 많은 친구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에 있는 가정들에서는 자녀들이 예배하는 삶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이 성실을 다해서 준비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창민 목사

바벨론 왕의 멸망을 경고함 (1)

(이사야 14:4-11)

세상에 살 때에 바로 살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다가 죽는 자는 지옥물에 가면 보통 사람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건강과 물질로 선한 일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야 14장 4-23절까지는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당하였는가를 노래를 지어 두라는 무서운 예언입니다.

1.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에 대한 노래를 지어 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을 당할 것이고 온 세상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데 그때에 부를 노래를 미리 지어 두라고 지시한 예언입니다.

(1)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당할 것에 대한 노래를 지어 두라고 하였습니
“...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4절)

‘어찌 그리’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벨론과 싸워 이길 나라가 없고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어찌 그리 갑자기 망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강대하던 바벨론이 하루밤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 쉽게 망했나! 어찌 그리 처참하게 망했나!’ 두 번이나 감탄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심판은 대단히 무서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2)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면 온 세상이 조롱해줄 것을 노래하라고 하였습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온하니 무리가 소리 질러 노래하는도다”(7절)

첫째로, 지나치게 사치하고 연락하던 바벨론이 당하니 조롱해지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궁궐에서는 금으로 만든 그릇만 썼는데 같은 모양의 그릇이라도 그릇마다 무늬가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사치한 바벨론 궁궐 안에서 잔치가 시작되면 한 달, 두 달은 보통이고 자막장 할 땐 수십일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온 성전지 금그릇을 온갖으로 술을 부어 마시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향락에 빠졌습니. 이렇게 밤을 밝히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떠들던 바벨론이 일시에 망하니가 노래 소리, 술 주정 하는 소리가 뚝 그치겠으니 자연히 조롱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 왕의 힘이 끊어지니가 조롱해지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한 번만 호령하면 산천초목도 벌벌 떨 정도로 그의 위세

가 당당했는데 바벨론 왕의 힘이 꺾여 그의 세력이 땅에 떨어질 때에 모든 나라들이 마중놓고 사는 조용한 세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침략의 명수인 바벨론이 망하니까 온 세상이 조롱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까닭없이 이 나라 저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여 학대하던 바벨론은 세계가 하나로 뭉쳐서 싸워도 이길 수 없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온 세계가 바벨론에게 착륙을 당하면서라도 이겨 할 수 없어 분해하며 이를 갈았습니. 그런 데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펴서 일시에 바벨론을 꺾어 멸망시키니가 학대를 받던 세계 만민의 신음소리가 사라지고 조용해지겠다는 말씀입니다.

(3) 바벨론이 멸망하면 향나무와 백향목도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을 노래하라고 하였습니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서리 하였은즉 울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애 하신도다”(8절)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오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기뻐하면서 마중놓고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는 향나무를 찍어다가 그들의 귀신당을 짓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어다가는 유통장을 자주 지었습니. 그러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니 자연히 만물도 춤을 추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4) 4-8절에서 배를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냥 고기를 바로 하면서 부모님을 대하면 효자가 되고, 자식을 대하면 양자를 열여 주는 아버지가 되고, 선생님을 대하면 순종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들을 대하면 바른 지도를 하는 스승이 됩니다. 사냥노릇을 바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친초목에게까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애석하여 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선생님에게 격정을 끼치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이나 하고 꾀를 함부로 낚아 버리고 음식도 아까운 줄 모르고 쓰레기통에 함부로 버리며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남에게 손해해를 끼치던 사람이 죽으면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고 만물이 저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남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 남에게 유익을 끼치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백 사람, 천 사람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2. 바벨론 왕이 음부에 떨어질 것에 대한 노래를 지어 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본문에는 바벨론 왕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풍자적인 예언을 하였습니.

(1) 지옥에 간 모든 영혼들이 깜짝 놀라겠다고 하였습니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이 서의 모든 영혼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므로”(9절)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질 때에 이미 지옥에 가 있는 많은 영혼들이 깜짝 놀라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살던 왕이어서 예측을 못하였으니 이제 지옥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모든 영혼들이 깜짝 놀라겠다는 것입니다.

(2) 지옥에 간 모든 영혼들이 비웃겠다고 하였습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나니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니라”(10절)
세상에서는 혼자 잘났다고 떠들어서 대대히 하나니 앞에서는 너도 나와 똑같은 지옥의 죄수라고 하면서 영혼들이 비웃겠다는 말씀입니다.

(3) 최악의 천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여 너의 비와 소리가 끊어졌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11절)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간 영혼들 중에서도 가장 지옥한 고통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똑같이 고통을 해도 똑같은 사람들. 세상에 사는 바벨론 왕에게 욕을 함을 당했던 수많은 자들이 그를 비웃고 더욱 괴롭히니 지옥에서는 가장 큰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를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세상에 살 때에는 부자가 나사로보다 좋았습니다. 부자는 돈 많고, 벼슬 높고, 권강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친구도 많고 식구도 많아서 세상에서는 부러운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돈도 없고 집도 한 칸 없어서 부자의 집 대문 밖에 살았습니다. 개는 배불리 먹고 나사로는 끼리끼리 먹고 다녔으니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집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연명하였습니. 친구도, 식구도 없었습니다. 또 건강하지도 않은 병자였습니.

둘째로, 부자가 죽으니 육신은 장례식을 잘하고 무덤을 태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손가락 끝의 물 한 방울을 얻어 먹으려고 해도 허락이 안 되는 곳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천 년, 만 년 영원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몸은 거적蓆에 돌돌 말아서 산기슭에 내던짐을 당하여 여구가 뜰이 먹었는지 모르겠습니. 그러나 영혼은 환광복으로 꾸민 하늘나라에 갔습니. 거기서 나사로는 천군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천 년, 만 년 영원히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니 죽은 후에는 부자보다 나사로는 더욱 행복합니다.

부자가 지옥물에 떨어지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이 지옥에 떨어지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을 해도 불쌍한데, 세상에 사는 바벨론 왕에게 욕을 당할 때를 잊었던 수많은 자들이 그를 비웃고 더욱 괴롭히니 지옥에서는 가장 큰 괴로움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4) 9-11절에서 배를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 때에 바로 살지 못하고 남의 눈에서 눈물을 쏟게 하고 가슴을 아프게 하다가 죽는 자가 지옥물에 가면 보통 사람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로 선한 일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접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시편 62:1-12)

다윗은 가장 위급했던 순간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돌보심과 완전한 사랑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김성권 목사

인생은 고달롭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지, 무엇을 소유하였든지, 또한 아무리 부요한 사람이든지 우리의 삶은 고독스럽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인도에는 굶주림과 질병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르완다에서는 격렬한 정치적인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아직도 러시아와 중국 및 아시아 여러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일본의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이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의 가정은 너무나 궁핍했습니다. 그래서 잘 못 지냈던 저는 세 살때까지도 걷지 못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일본이 몰리간 후, 저는 부모님을 따라 이북으로 이주했고 얼마 후에 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6·25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을 통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참어왔던 저는 많은 죽음과 살인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겐 진정한 피난처가 없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땅 어디에서든 진정한 행복과 피난처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시대는 참으로 안타깝고 소망없는 시대입니다. 늘 죽음에 우리 가까이에서 맴돌고 있으며 어찌만 바로 눈 앞에 다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친구들, 가족들, 음식이나 술, 심지어는 마약과 같은 것들을 통해 무가한 것들을 얻고 일시적인 위로를 받고자 할망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도 언제나 평화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 세의 여덟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았습다. 그의 가족들은 한낱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했던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목자는 평화로운 생활을 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생각과는 달리, 다윗은 그의 양부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처절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표시로 기름부음을 받은 뒤에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을 피해 피신생활을 해야 했고, 곤고한 자신

의 삶을 바라보며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더구나,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강한 전사로서 다윗은 수많은 위험한 일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터득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많은 사람의 음모와 모함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사랑하는 아들 암살물로부터 배신과 반역의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반역과 공격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미 노약해진 다윗은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탈출하기 위해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삼하 15:7-17:22).

다윗왕은 이러한 절박한 위기 속에서 시편 62편을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기록한 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통해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말할 것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다"(1절).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때에 '잠잠했습니다!' 놀라움과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친구나 가족들에게 드러내고 털어놓는 대신 조용한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평강의 비밀을 만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의 가장 위급한 곤경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 보았습니까? 다윗은 충심을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만이 소망과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은 단지 12절로 되어 있지만, 다윗은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여섯 번이나 사용합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다"(2절).

다윗은 그의 많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든든한 반석이요 요새와 같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요새 안에 거할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자신을 해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온갖 거짓의 말

을 입삼으며 고난 가운데 처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원수들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던지거라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랴만 피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일로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라"(3-4절).

다윗의 이 고백이 참된 진실인가, 높은 지위와 명예를 지닌 사람에게만 반드시 그를 도약하고 넘어뜨리려는 반대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옳으며 기본품은 말들을 건네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충고와 권고는 꾀로써 위장되고 그들은 자신들의 적이 넘어지며 재난을 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위태로운 궁지에 몰린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반복하여 기록(5-7절)한 후, 백성들에게 고합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8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질 때나 극심한 고통의 순간을 맞을 때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에게 달린 돌과 입보다 거절하리도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지치지 말지이다"(9-10절).

다윗은 이제 인간들의 실상을 묘사합니다. 만일 어떤 상황 한복판에 부딪히고 악한 것을 올려놓고 다른 쪽은 비웃된다면,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은 쪽이 오히려 내려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부정한 것들은 궁기보다도 알파카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아무런 가치없는 이리저리는 것, 곧 인간의 부나 힘을 의지하지 말고 고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주는 일시적인 행복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편 62편을 끝맺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11-12절).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권능과 인자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벧전 2:4).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무런 희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외없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시며 든든한 피난처, 곧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관계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신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피난처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시고 간섭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생의 곤고하고 어려운 때에 온전한 보호와 안위를 주시는 유일한 피난처로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위급했던 순간에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온전한 돌보심과 완전한 사랑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과 영원한 축복을 줄 다른 어떤 사람도 피난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피난처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받고 여러분의 성장과 이해를 초월하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 사랑이 넘치는 삶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원무궁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 만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

선교의 성경적 근거 4

성경 '역사서'에서 발견하는 선교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가나안에 정착한 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신정국)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택하신 나라가 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축복과 구별된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다스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사 45: 6).

애굽을 떠나 광야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문화들 사이에 두고 긴장과 갈등의 나날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인들의 신앙에 물들었다가, 다시 한 번 절연히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바는 이스라엘이 '영국'가 돼서 하나님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이야말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약호수아로부터 시작하여 역대하에 이르는 시기)를 거치면서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편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교 출신인 기생 라합과 모압 출신인 롯, 사르파와 부와 아람의 장군 나아만 등

은 이러한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아만에게 전도한 이스라엘의 계집종 이야기(왕하 5:1-7)는 이방인 사회에서 무명의 평신도가 '구원의 힘'이 여호와께 있을'을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한 구약적인 중요한 선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인구 조사할 때 이방인의 숫자가 153,600명이나 되었다(대하 2:17,18)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국의 신앙 안으로 영입하는 것을 허용한 나라는 당대에 이스라엘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고대 열국의 종교와 제사는 배타적이어서 자기들의 종교와 편견에 어떠한 이방인들도 수호신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서 이방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스라엘의 언약 법은 고대 세계에서 매우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거주자들을 완전히 인정하고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가입되도록 특수법을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존재한다는 자체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일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궁극적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온 세상에 알리는 도구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 서는 것같이 이스라엘은 무대위에 올라선 특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The God who Acts)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열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회하여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영적 대결'의 자리는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사탄들의 두려움과 편견에 의해 만들어진 부의의한 자연신들을 심판하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살아 계신 참 능력의 하나님되심'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은 하만의 꾀계를 통해 전멸될 위기에 직면했으나 모르드개와 에스테 같은 신앙의 인물들로 말미암아 구출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본토 백성들 중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습니다(에 8:17). 이 또한 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선교 사상의 절정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 기도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도로서 솔로몬 자신의 소원이나 욕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성령의 감화와 인도로 드러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에서 성전은 이스라엘만 사이의 지배 아래 놓였던 이스라엘은 하만의 꾀계를 통해 전멸될 위기에 직면했으나 모르드개와 에스테 같은 신앙의 인물들로 말미암아 구출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본토 백성들 중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습니다(에 8:17). 이 또한 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교위원회 제공)

선교 정보 나누기(2)-수단

수단 남부 교회들의 보호와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 끊임없는 내전으로 기독교 입지 불안 -

수단은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부에 위치한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로서 북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에리트리아와 지리베리, 남쪽으로는 케냐, 우간다, 타자, 서쪽으로는 중앙 아프리카공화국, 차드, 리비아 등 9개국과 접하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면적은 약 250만 평방km이며 인구는 약 2,900만명으로 추정되고, 140개가 넘는 부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수도는 카르툼이며, 30%의 실업률과 72%의 문맹률을 가진 가난한 나라로 아랍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수단은 나일강이 현재까지 흐르고 황금과 상아기 풍부한 곳이다. 리비아와 이란의 원조도 정부가 유지되고 있으며, 1992년에는 가뭄과 전쟁으로 인한 기근으로 전 인구의 약 60%가 영양실조와 기아로 고통받았으며,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수 부족의 심각성을 무시하여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원조를 하지 않아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수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구약시대에서 '구스'라는 땅으로 알려진 곳이며, 아람인들에 의해 '혹인들의 땅'이란 뜻을 지닌 '빌라드 알수단(Bilad al-

Sudan)'이라 불렀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곳에 처음 도착한 것은 6세기였으며, 왕국들을 변화시키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기독교 영향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나일강 남쪽을 따라 내려온 이슬람 선교사나 무역상들을 통해 서서히 이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821년 이집트가 수단을 침략했고 이어 영국이 쳐들어왔는데, 두 나라는 함께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다. 1956년 독립 이후 북부수단의 회교본주의자들과 남부수단의 온건주의자들과의 두 번의 내전, 쿠데타 그리고 억류태도, 이슬람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지도자들의 숭배 등의 진통을 겪으면서 회교 극단주의 집단이 득세하였다. 1989년에 정부는 사리아법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북쪽의 모슬렘과 남쪽의 그리스도인 및 정통 숭배자 연합 세력간의 내전을 심화시키고 있어 많은 피난민이 국내외로 도피하여 피난민촌을 형성하고 있다.

수단의 종교별 분포를 보면 전 인구의 약 70%가 회교도이고, 약 9.9%가 전통(토착)종교이며, 무종교가 1.1%, 나머지 19%가 기독교로 되어 있으나, 그 안

에서 개신교는 약 7%로 추산되고 있다. 수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4개 단체의 16명으로 추정된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들의 삶이 위태로워 예수님을 믿어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다. 모든 대학생들은 대학에 진학하기 전에 두 달간의 군사 훈련과 격한 이슬람 입법 교육 과정을 거치는 데 비밀경찰과 밀고자 조직망이 거미줄같이 되어 있어 개종자들에게 대한 감시가 철저하여 선교가 쉽지 않다.

시대적 조류는 남측 기독교의 정황 운동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만일 내전이 모슬렘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면 북쪽은 결국 그들의 무자비한 정책을 남쪽의 그리스도인들과 정통 숭배자들에게 강요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현재 이슬람 세력이 팽배하고 있는 남부수단의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 열아기(1)

	공업선전국들	다른 개발도상국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평균수명	74세	62세	51세
의료혜택	100%	63%	45%
식수보급률	100%	5%	37%
1일 필요 영양보급률	132%	102%	91%
절대 빈곤			50% 이상

(1992년 기준)

※ 유부부 선교사, 기독교는 아프리카를 구원하고 있으나, 미션월드에서 인용